

조선 시대 후기 음악

1592~1897년

조선 시대 후기의 악곡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선 시대 후기는 임진왜란부터 개화기 이전까지를 말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많은 악기가 분실되고 음악가들이 죽거나 직업을 바꾸는 상황이 계속되는 반면에, 백성들의 삶이 중시되면서 민간 중심의 음악이 발달하였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부산진 순절도'

삼현육각
김홍도 「단원풍속도첩」 중 '무동'

풍물놀이

양반과 중인 계층을 중심으로 풍류방 음악이 성행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영산회상, 가곡, 시조 등이 있다. 또 삼현육각, 줄풍류, 대풍류 같은 다양한 연주 형태가 나타났다. 서민 계층 사이에서 민속악이 성행하였으며 판소리, 산조, 잡가 등의 음악이 등장하고 시나위, 민요, 풍물놀이 등이 발전하였다.



판소리

영산회상



「영산회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류 음악이다. 원래는 '영산회상불보살'이라는 노랫말이 붙은 성악곡이었으나 현재는 기악곡으로 연주된다. 「영산회상」의 종류로는 '현악 영산회상', '관악 영산회상', '평조회상'이 있으며 한배에 따른 형식*의 모음곡이다.

* 한배에 따른 형식 | 느린 곡으로 시작하여 점점 빠른 곡으로 이어 가는 형식이다. 여기서 '한배'는 빠르기를 뜻한다.



'영산회상'의 '평조회상' 연주 모습

1 「영산회상」을 알아보고, 악곡을 감상해 보자.

「영산회상」은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삼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총 9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르기는 느리게 시작하여 점점 빨라진다.

• 「현악 영산회상」 중 '세령산'



* 하현도드리 | 세 종류의 「영산회상」 중 「현악 영산회상」에만 있다.

2 사진의 악기 편성을 보고, 어떤 종류의 「영산회상」인지 찾아본 뒤 악곡을 감상해 보자.



더 알고 가기

「영산회상」의 악기 편성

- 현악 영산회상 거문고, 가야금, 세피리, 대금, 해금, 양금, 단소, 장구 등
- 관악 영산회상 피리, 대금, 해금, 아쟁, 소금, 좌고, 장구 등
- 평조회상 거문고, 가야금, 향피리, 대금, 해금, 아쟁, 소금, 좌고, 장구 등

가곡



가곡은 시조의 시를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전통 성악곡이다. 여러 곡이 모여 한바탕을 이루며, '여창, 남창, 남녀창'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가곡은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3 가곡 중 '우조 초수대엽(동창이)'을 감상해 보자.

• 가곡 중 '우조 초수대엽(동창이)'



4 가곡과 시조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

구분	가곡	시조
장단	16박 또는 10박 장단 사용	5박과 8박 장단을 혼합하여 사용
음계	평조(황, 태, 중, 임, 남)와 계면조(황, 중, 임)	계면조(황, 중, 임)
반주	관현악 반주	장구 장단이나 무릎장단
형식	5장 형식	3장 형식
	대여음(전주)	
	1장 동창이 밝았느냐	초장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2장 노고지리 우지진다	
	3장 소치는 아희 놓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중장 소치는 아희 놓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중여음(간주)	
4장 재너머	중장 재너머 사래 긴 발을 언제 갈려 (하나니) 생략	
5장 사래 긴 발을 언제 갈려 하나니		

산조



산조는 시나위 또는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생긴 기악 독주곡이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를 기본으로 굿거리, 휘모리, 단모리 등의 장단이 더해져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장구로 반주하며, 장단에 따라 한배의 변화가 나타난다. '가야금 산조, 거문고 산조, 대금 산조, 해금 산조, 아쟁 산조' 등이 있다.

5 거문고 산조를 알아보고, 악곡을 감상해 보자.

거문고 산조는 조선 후기 백낙준(1876~1930)에 의해 처음 연주되었으며 「한갑득류」, 「신쾌동류」 등이 전해진다.

• 거문고 산조 「신쾌동류」 중 '중중모리'



6 대금 산조를 알아보고, 악곡을 감상한 뒤 거문고 산조와 비교해 보자.

대금 산조는 20세기 초 박종기(1880~1947)가 창시하였으며 「서용석류」, 「한범수류」, 「이생강류」, 「원장현류」 등이 있다.

• 대금 산조 「서용석류」 중 '자진모리'



거문고 산조 연주 모습



대금 산조 연주 모습

시나위



006

시나위는 무속 음악에 뿌리를 둔 즉흥 음악으로 굿판에서 연주되던 기악 합주곡이다. 처음에는 합주로 시작하다가 중반에는 독주로 전개되어 연주자들의 높은 기량이 요구된다.

7 시나위를 연주하는 악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음색에 유의하며 감상해 보자.



가야금 병창



007

가야금 병창은 민요, 단가, 판소리의 일부 대목을 가야금으로 연주하며 노래하는 음악이다. 민요의 '새타령'과 '남원산성', 단가의 '호남가'와 '죽장망혜', 판소리의 '춘향가' 중 '사랑가', 「홍보가」 중 '제비 노정기', 「수궁가」 중 '고고천변' 등이 있다.

8 가야금 병창의 특징을 생각하며 악곡을 감상해 보자.

• 가야금 병창 '고고천변'*

노래

고 고 천 변 일 룬 흥 부 상 에 등 - 등 떠

가야금

* **고고천변** | 판소리 「수궁가」에서 별주부가 용왕의 병을 치료하는 데 쓸 토끼의 간을 구하러 세상으로 나와 산천경계를 구경하는 장면을 노래하는 대목이다.



가야금 병창 연주 모습